



주제	친구 사이 진정한 우정
권장 차시	10차시
대상 학년	초등학교 2~6학년
관련 교과	2학년 국어 -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 읽기 3학년 국어 -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 쓰기/ 자신이 읽은 책 소개하기 3학년 도덕 - 친구의 소중함 알기 4학년 국어 -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는 글쓰기 5학년 국어 -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하기/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하기 6학년 국어 -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PDF 파일 다운로드**

'보리출판사 도서관 프로그램 홈페이지' 접속 (<https://boribooks.modoo.a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

**책 소개**

오래전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달로 쫓겨난 옥토끼들은 메마른 달의 땅을 일구어 옥토끼들 도시를 만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최첨단 시설로 발전한 옥토끼 도시, 그 도시에는 지구에서 물을 구해오는 데 꼭 필요한 달떡을 만드는 달떡연구소가 있습니다. 달떡연구소 연구팀의 에이스인 '토린'은 어느 날 소원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실수투성이 아리와 한팀을 이뤄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러 지구로 가게 되는데, 첫 임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고 끝내 임무는 실패하고 맙니다. 음모에 휘말린 토린과 아리, 그리고 지구에 사는 인간 아이 나래는 얽힌 실타래를 풀 듯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서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친구 사이 진실한 우정과, 살아가는 데 간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판타지 동화.

단계	활동내용	총 10차시
독서 준비	책 살펴보기	1차시
독서	경험을 떠올리며 읽기	1차시
	궁금한 점을 떠올리며 책 읽기	
독서 후	띠지/책갈피 만들기	1차시
	나만의 달떡 만들기	1차시
	우리 반 소원 나무 만들기	1차시
	인물 면담하기	1차시
	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판결 내리기	1차시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1차시
정리활동	한 줄 추천 문장 쓰기	1차시

1. 누가 만든 책입니까?

글 \_\_\_\_\_ 그림 \_\_\_\_\_ 출판사 \_\_\_\_\_

2.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아요.

- 제목을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나요?
- 표지 그림에 무엇이 나오나요?
- 표지 그림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 누가 소원을 들어주는 걸까요?
- 달떡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 목차를 살펴보고 독서 계획을 세워 봅시다.



3. 책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지 써 봅시다.

② 책에서 나올 것 같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해 봅시다.

소원	계수나무	장미꽃
거북이	옥토끼	달떡
소방차	바다	호랑이

1. 경험을 떠올리며 책을 읽어 봅시다.

“왜 남의 걸 멋대로 보는 거야! 비겁하게.”  
 포달이 수첩을 거칠게 낚아채며 토린의 어깨를 훑 밀쳤다. 그 바람에 토린이 벽에 쿵 부딪치고 말았다.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 비겁해? 누가 누구보고 비겁하다는 거야! 이 배신자야!”  
 토린도 포달에게 달려들며 어깨를 밀쳤다.  
 “배신자라니! 말 똑바로 해. 네가 뭘 알아? 혼자만 잘난 네가 뭘 알겠냐고!”  
 포달이 지지 않고 토린에게 달려들었다. 어느새 둘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있었다.



나도 친한 친구와 싸워서 속상한 적이 있었어.

화해하고 싶은 속마음과 달리 친구에게 심한 말을 했던 적이 있어.

2. 떠올린 경험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며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 책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문하며 읽기                      -비판하며 읽기                      -상상하며 읽기  
 -경험이나 지식을 떠올리며 읽기      -사실을 확인하며 읽기  
 📖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 1. 궁금한 점을 떠올리며 책을 읽어 봅시다.

달빛 소용돌이가 달에 닿았을 때쯤, 신비한 소리가 소용돌이를 타고 들려왔다. 지저귀는 새소리 같았지만 더 은은했고, 유리구슬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지만 훨씬 맑았다. 조용하지만 힘차게 터지는 꽃망울처럼 부드러운 소리가 강하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바로 달빛이 부르는 노래였다.

“세상에…….”

“달로 가는 길이야.”

모두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아주 오랜 옛날 옥토끼들이 넘나들던 달빛 길이 열린 것이다.

친구와 보름달 아래에서 차 한잔을 나눠 마시는 것, 그건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다. 평범하고 쉬운 일이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아리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상상만 하던 일이 진짜 일어나기도 한단다.”

할머니가 아리를 가볍게 껴안았다.

“이제 이 차를 마시면, 너희는 떠나는 거지?”

나래가 무척 슬픈 얼굴로 말했다.

“아마도.”

토린이 짧게 대답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정작 헤어질 때가 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래 목소리가 떨렸다. 애써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토린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티 내지 않으려 꺾꺾 눌렀다.

“잘 모르겠어. 달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구에는 정해진 옥토끼만 올 수 있거든.”

토린은 괜히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달빛 소용돌이는 어떤 모양일까?

아주 먼 옛날, 옥토끼와 인간은 차 한 잔을 나눠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달빛 소용돌이와 함께 들려온 신비한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헤어지는 순간에 토린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2.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을 써 봅시다.


3. 떠올린 질문을 정리해 봅시다.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 📖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과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구별하지 말고 자유롭게 떠올려요.
- 📖 책을 읽을 때 떠오르는 궁금한 점을 바로 적어 두면 잊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요.
- 📖 책을 모두 읽은 뒤에 자신이 떠올린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요.
- 📖 책에서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인물의 생각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답을 생각해요.  
책 읽기가 끝난 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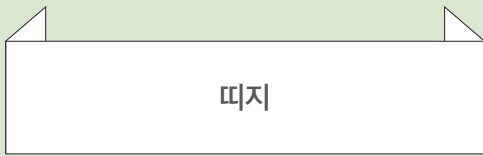
수업 시간 1차시

활동 목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준비물 색연필, 종이, 가위 (공통) | 풀(띠지) | 코팅지, 끈 (책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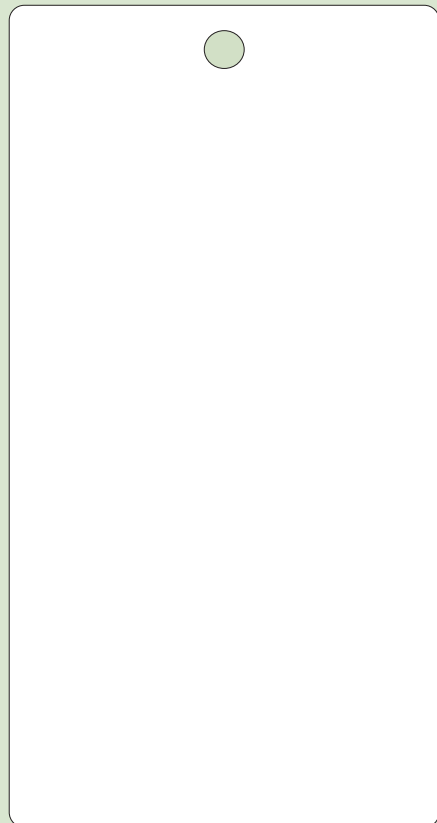
띠지를 만들어 봅시다.

1.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 쓴다.
2. 기억에 남는 그림을 간단히 그린다.
3. 내가 주고 싶은 상 이름을 붙인다.



책갈피를 만들어 봅시다.

1.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 쓴다.
2. 기억에 남는 그림을 간단히 그린다.
3. 코팅해서 책갈피 끝에 끈을 묶는다.



- 📖 띠지는 42\*7cm 정도 크기의 종이가 필요해요.
- 📖 책갈피는 워크북을 오려도 되고, 10\*5cm 정도 크기의 종이를 쓸 수도 있어요.
- 📖 띠지나 책갈피를 이용해서 책을 소개하는 활동을 해도 좋아요.

수업 시간 1차시

활동 목표 대상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준비물 색연필

1. 달떡을 그리고 이름을 지어 봅시다.

2. 달떡의 맛, 냄새, 효과를 써 봅시다.

이 달떡은 말이야!



📖 고무찰흙이나 색깔 점토를 이용해서 달떡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색종이에 달떡에 관한 내용을 적고 이쑤시개를 붙이면 작은 깃발이 돼요. 깃발을 달떡에 꽂으면 완성!



수업 시간 1차시

활동 목표 알맞은 이유를 들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준비물 포스트잇 또는 색종이, 나무 모형

1. 달에 빌고 싶은 소원과 이유를 써봅시다.

내 소원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 거야!  
난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거든.  
강아지를 키운다면 내가  
잘 돌봐줄 수 있어.

나는 달에게 씩씩한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고 싶어.  
친구들 앞에만 나서면 내 마음과 달리  
자꾸 부끄러워지거든.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

2. 소원나무에 쪽지를 걸어 봅시다.

- 📖 나무 모형을 활용하면 더 좋아요.
- 📖 큰 종이를 잘라 종이 나무를 만들 수도 있어요.
- 📖 칠판에 나무 그림을 그린 뒤 소원 쪽지를 자석으로 붙여도 돼요.

수업 시간 1차시

활동 목표 인물을 소개할 수 있어요.

준비물 마이크

• 기자가 되어 봅시다.

1. 내가 면담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2. 질문할 내용을 써 봅시다.

-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이 한 일을 떠올려요.
-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요.
- 비난하는 내용이나 정해진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요.

①

②

③



3. 면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면담할 대상이 되어 봅시다.

1. 나는 등장인물 중 누구입니까?

2. 면담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봅시다.

-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인물의 입장에서 말할 내용을 정리해요.
-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숨겨진 마음을 생각해봐요.
- 인물의 입장에서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떠올려 봐요.

①

②

③

3. 면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4. 면담하면서 새로 알게 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는지 써 봅시다.

- 📖 면담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 📖 인물을 나누어서 모둠별로 다른 면담을 진행하면 좋아요.
- 📖 직업과 관련된 면담으로 내용을 변형하면 저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달떡 연구소에서 달떡을 연구하는 팀, 달떡을 생산하는 팀, 소원을 조사하고 들어주는 팀, 물을 관리하는 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면담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 1차시

활동 목표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할 수 있어요.

준비물 필기구

1. 아래 <보기>를 보고 판결 내릴 대상을 선택해 봅시다.

- ① 지하 연구소를 만든 옥토끼 도시 시장
- ② 지하 연구소에 나타난 포달
- ③ 지하 연구소에서 일하던 옥토끼 경비들
- ④ 달떡 연구소의 규칙을 어기고 나래의 소원을 들어준 토린

2. 선택한 인물이 한 행동 중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3. 선택한 인물이 그렇게 행동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4. 어떤 판결이 알맞다고 생각합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5. (선택)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려 봅시다.

📖 여러 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면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점!

-알맞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지 확인해요.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해요.

수업 시간 1차시

활동 목표 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준비물 편지지

-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 📖 인상 깊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 📖 주인공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 📖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 📖 다른 친구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 1차시

활동 목표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준비물 색연필

• 평론가가 되어서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달떡 연구소>를 추천하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전설 속 옥토끼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옥토끼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

★ 보름달 뜨는 밤을 기다리게 하는 책! 내 방 창가에서 노란 편지를 찾아보자!

★ 옆에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책!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

★

★

- 📖 책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면 좋아요.
- 📖 책 내용 중 한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 📖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